

## 광복 50년과 남북한 도서관문화의 이해

한 상 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목 차

1. 서 론
2. 북한의 도서관 현황
3. 북한의 도서관 정책과 제도
4.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대안 및 결론

### 1. 서 론

경제적 협력과 자국 우위의 경제 중심으로 국제정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는 세계의 역동적 변화와 더불어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21세기가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온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한 민족으로서 40여년간의 분단의 아픔을 종식함은 물론 민족의 정기를 잇고,

강대국 중심의 세계구도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민족은 남·북이 협력해야 할 명제를 안고 있다.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임원이자 이상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작금의 세계정세는 우리가 서서히 통일의 전기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짙게 하고 있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 총리에 의하여 서명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도출해 냈는데 이 합의서에 의하면,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

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서로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향한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 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의 실정 및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적 중대사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정보유통과 사회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 제도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도서관 현황 특히 우리에게 베일에 가려 있는 북한의 도서관 문화 현황을 중심으로 운영체제 및 각 관종의 도서관을 개괄적으로 비교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도서관의 효과적인 협력 및 교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북한의 도서관 현황

### 2.1 도서관의 개념

조선말 대사전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도서관(명) : 책을 비롯한 출판물을 정비·보관하고 사람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화기관, 우리나라 도서관은 도서선전과 책읽기 지도를 통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문헌재부를 보관·관리하는 중요한 문화기관이다.”

또한 백과사전 2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서관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 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 도서관사업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의 참다운 학습의 거점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나라에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태의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빈틈없이 골고루 꾸려졌으며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전체 인민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도서관은 문화 및 교육기관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 목적과 기능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와 혁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서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북한의 모든 문화활동에 적용된다. 실제 북한은 유일사상 체제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군중 문화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노동당은 이른바 군중문화 활동에 따른 당리를 위하여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시설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도서관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체제구조상 북한의 도서관을 순수한 의미의 교육, 문화, 정보의 가치를 지니는 도서관 본연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 2.2 도서관 자료조직

북한에서는 자료조직 체계로 성인공공도서관

용의 「도서 및 서목분류표」와 학생도서관용의 「학생도서관분류표」에 기초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이 1980년에 발표한 「도서분류표」를 사용하며, 전문도서관용으로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만든 「중앙과학기술통보사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 분류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록은 없으나 전문도서관용 분류표가 다른 일반 분류표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대부분 십진분류표를 쓰며 학생도서관용은 성인도서관용의 간이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말다듬기자료집」안에 북한의 도서관학분야의 용어를 정리한 것 중 분류체계상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책의 분류체계를 ‘류문: 원갈래’, ‘강문: 큰 갈래’, ‘목문: 잔갈래’, ‘세목문: 실갈래’로 나누고 이를 부분끼리 단계별로 묶은 표에 대하여 류문표, 류강표, 류목표, 류세표 등으로 나누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일반적인 분류체계도 우리나라의 십진분류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이상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음 북한 목록규칙으로는 「목록 및 서지기입법」이 있고 이것은 서명기본기입을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목록규칙」신판 예비판의 유니트카드식 목록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한편 북한에서도 책자형 도서목록과 신간안내서가 발행되고 있는데, 도서목록으로 신문, 화보, 학술지 등이 수록되어 있는 「조선정기간행물목록」과 북한의 주체사상 및 우월성을 나타내

는 혁명도서를 북한의 주요상대국가의 언어로 번역, 출간한 북리스트로 「조선도서목록」이 있다. 이밖에 「Catalogue of Korean Publications /조선출판물목록」, 「New Books/종합목록」등 여러종류의 목록이 있다. 이러한 책자형 목록들은 대부분 전문이 영어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김일성 저작집과 혁명도서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외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앞서 기술된 목록의 내용구성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다양하고 균형있는 장서구성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추측된다.

### 2.3 도서관 봉사활동

우리나라에서의 도서관 봉사활동과 북한에서의 봉사활동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다음에 예시한 高哲義의 방문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화국에서는 생산과 학습 등에 있어서의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각종 도서관이 밀접하게 제휴하고, 대중의 중심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현장봉사활동을 차례대로 전개하고 있다.

현장 봉사활동에는 각 도서관과 공장, 기업소 등의 담당지역을 갖고, 당지 도서실과 제휴한 리퀘스트를 받아, 도서를 보급하는 활동을 한다. 함경북도 도서관에서는 1984년내 100여회의 현장봉사를 하여 1천여권의 과학기술도서를 보급, 215건의 기술혁신안의 도입에 일역을 하고, 평안남도 도서관에서는 도내 주요 공업지구에 있는 순천지구, 안주지구, 북창지구, 덕천지구 등 35개소를 담당, 지난 1년간 22건의 기술혁신안

을 완성, 6,600공정의 노력을 절약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도서관원 등은 현장에서 리퀘스트를 받아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운곡 노동자구 도서관의 박경실 사서는 어느 탄광노동자로부터 「권장기운전공」이라는 잡지의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그날로 구입하여 광도 깊숙히서 일하고 있는 독자에게 제공하였다. 다른 도서관원 등은 리퀘스트를 받은 물건이 소장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서 봉사한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도서실에서는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에 인민대학습당과 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200여권의 도서와 600여권의 잡지를 차입하여 봉사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북한의 도서관은

1) 사회구조 및 정치체계의 의미가 부여되긴 하지만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실제적인 교육에 종사하고 있으며, 2) 사회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봉사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북한 도서관은 2차적 보조 교육수단이 되기 보다는 도서관 자체가 1차적, 직접적인 교육기관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도서관은 이용할 대상자, 도서관의 사업성격, 소장 출판물의 특성에 따라 군중(공공)도서관과 과학(전문)도서관으로 구별되고 다시 군중도서관은 성인용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으로 구분되며, 과학도서관은 종합적인 과학도서관과 전문적인 과학도서관으로 구별된다. 여기에서의 과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학교, 전문, 특수도서관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봉사내용을 백과전서의 내용을 빌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들에서는 관내열람사업과 관외대출 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통신대출, 이동문고, 현장봉사를 광범히 조직한다. 도서관들에서는 도서전람회, 읽은 책 발표모임, 과학토론회, 해설강의, 이야기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을 널리 해설 선정하며 과학기술자료의 안내와 통보사업을 통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준다.”

간과할 수 없는 체제유지 목적의 정치적 의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상의 내용에서처럼 북한의 도서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형식의 도서관봉사가 제도적 배경을 지니고 조직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통신대출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히 시행되고 있지 않은 봉사활동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 2.4 도서관현황

최근에 입수된 내외통신 92년 6월 8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북한은 1992년 현재 도, 시, 군 소재지들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 각급학교 및 농촌 등에 있는 15,000여개의 도서관, 도서실에 컴퓨터, VTR 등 현대적인 설비들과 도서들을 구비하고, 대상별, 직업별 특성에 맞게 과학강의, 새기술강의, 이동강의, 현장강의 등 여러가지 독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방송하였다.

한편 中朝兩國文化計劃에 따라 중국도서관대표단이 1991년 10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 대표단은 중국문화부도서관사부사장 鮑振西를 단장으로 한 다섯명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이 대표단이 방문한 도서관의 견문과 감상을 요약한 것이다.

“조선국가교육위원회 도서관지도국 국장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조선전국에는 각종 유형의 도서관이 7,950개가 있고, 총 1억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는데, 그중 공공도서관 장서가 1,300여만권, 근무인원이 13,000여명 그중 공공도서관 인원이 2,500여명이다.”

실제 체제 구조상 북한의 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도서관처럼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당의 정치 선전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 제도적 실행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도서관의 외형적 체제를 갖춘 조직으로서 모든 행정구역과 작업장별로 많은 도서관이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통일원 자료조사담당관실의 사서인 송승섭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예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북한도서관의 현황과 기능을 정리하고 있다.

(1) 북한의 공공도서관 설립목적과 기능은 김일성 유일사상(주체사상)의 유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2) 북한의 도서관 현황은 전국에 15,000개소가 있다고 발표되었으나, 산술적 의미의 조직 체계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서관과 도서관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시설의 후진성이 북한

의 도서관을 방문한 기록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통계로는 볼 수 없다.

(3) 북한 도서관의 장서량은 1973년 이후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으며 방문기를 통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는 알 수 없다.

(4) 북한의 도서관 운영체제는 국가도서관 운영체제로 도서관지도국과 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 산하에 공공도서관망과 과학도서관망을 두어 사서 검정수험제도를 실시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짜임새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

(5) 북한의 도서관은 행정구역단위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아동도서관 및 이동도서관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봉사가 이루어진다.

(6) 북한의 각종 도서관의 봉사활동은 상호 연결되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통신대출이나 현장봉사에 많은 역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실제 인민대학습당에는 정보조사제공 성격의 질문을 받아 회신을 보내는 전문집단이 구성되어 있고, 각 행정구역 단위로 연결된 지역도서관에서는 관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정보제공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7) 자료의 분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십진 분류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도서 및 서지분류표」, 「학생도서관분류표」, 「도서분류표」, 「중앙과학기술통보사분류표」등이 있어 관종별로 구분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편목에 필요한 목록규칙으로는 「목록 및 서지기입법」을 사용하는데 도서명 기본기입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9) 국가도서관격의 인민대학습당은 종합통신대학의 성격과 강의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전문부서로 그 규모나 내부시설 및 장서현황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3천만권의 장서능력과 5천석의 열람석 및 800명의 사서와 200명의 강사가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10) 북한이 자랑하는 김일성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다수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의

심스러운 면이 많은 반면에 국가적인 조직체제로 볼 때 사회주의적 계획성에 의하여 철저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도서관은 남한의 도서관과 같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장치로 존재하는 자발적인 실행기관이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 정치제도화된 사회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남한의 도서관과 단순비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표 2.1 도서관의 개황비교

북한의 도서관		남한의 도서관	1992년 현재
도, 시, 군, 구 도서관	460여개	공공도서관	273개
대학도서관	230여개	대학도서관	327개
전과학교 도서관	500여개	학교도서관	9,117개
과학연구기구도서관	100여개	전문·특수도서관	387개
공장, 기업도서관(실)	2,500여개	협작농장도서관	4,000여개
도서, 잡지 열람실	150여개		

### 3. 북한의 도서관 정책과 제도

#### 3.1 도서관 운영체제

북한의 도서관은 국가조직상 당비서국에 직속된 국가검열위원회와 행정부에 속하는 정무원이며, 직접적으로는 행정기관인 정무원 산하 교육위원회 도서관지도국이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지도국은 산하에 도서관 운영관리방법연구소와 과학도서관망, 공공도서관망을 두고 사서의 검정시험을 관리한다.

조선국가교육위원회에서 설립한 도서관지도국

은 전국도서관사업을 관리한다. 도서관지도국은 7명의 근무인원이 있는데 주요 임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동지가 도서관에 관한 지시, 당과 국가와 연관된 방침정책을 집행에 관철시킨다. 도서관에 관한 설치, 포국, 규정, 규범 등의 법규성 문건을 제정하고, 아울러 감사집행의 상황을 감독한다. 도서관 근무인원에 대해 배양교육을 하는데, 3급에서 6급의 사서로 심사하여 허가 비준하는데, 도서관의 대외교류업무의 임무를 맡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부와 보통교육부에서는

도서관업무를 관리하는 전문인원을 갖추고 있다. 과학원, 공장기업, 합작농촌, 과학기구의 상급주관부문에는 도서관위원회가 있는데, 그 계통의 도서관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도행정 경제위원회에서 교육부를 설립하였고, 시, 군, 구에서 설립한 교육과에서는 본지역의 도서관업무를 관리한다.

북한은 [도서관기본규범]을 제정하였다. 현행되는 [규범]은 정무원에서 1986년 12월에 비준된 것이다. 국가교육부회 도서관지도국에서는 [도서관 기본규범의 실시세칙]을 제정하였다.

도서관지도국에는 도서공급소가 설치되어 있고, 각 도, 시, 군에는 도서공급과가 설치되어 있어 각 도서관에 교육부문의 출판물을 공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기타 출판사가 출판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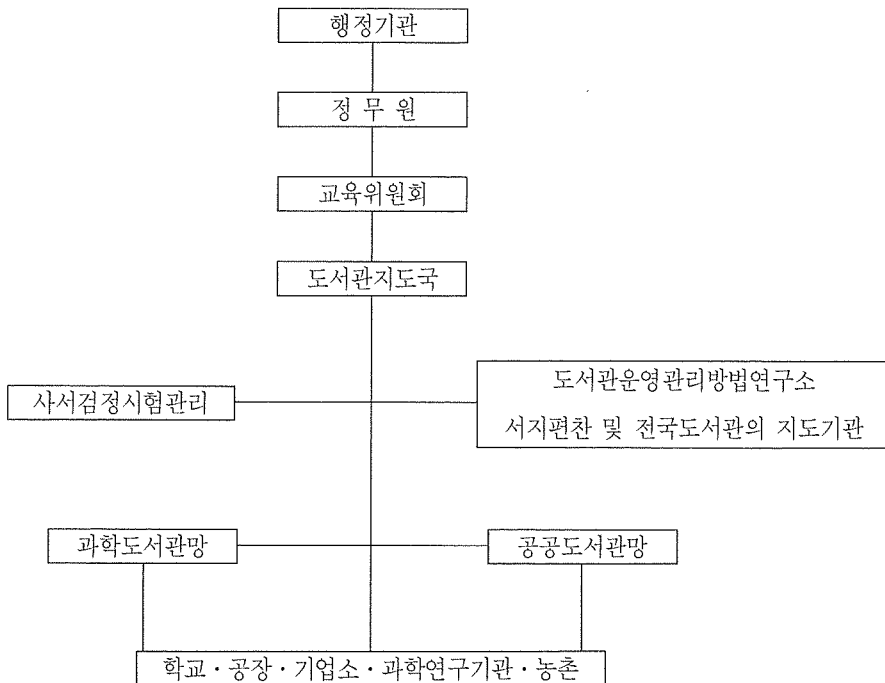
서는 도서관이 여전히 서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도서관지도국의 지휘하에 도서관응용방법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는 원래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연구소였다가 1984년 4월 인민대학습당 개관과 함께 독립하였고,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김일성주석, 김정일동지가 도서관사상, 이론과 도서관에 대한 지도사상을 연구한다.
- (2) 도서관업무의 성과 및 경험, 이를 이론화하는 일을 하며 그 결과를 널리 보급한다.
- (3) 도서관직원에 대한 재교육을 수행한다.
- (4) 현장지도를 수행하고 경험을 서로 교환하도록 한다.

북한의 도서관협회는 1953년에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IFLA에 가입되었고, 이 연구소에는

도표 3.1 북한의 도서관 운영체계도



50명의 연구원이 있고 학술이론연구실, 방법연구실, 현대화연구실, 자료편집실, 출판실 등 5개의 부서로 나뉘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전의 업무는 도서관관리, 장서설치, 장서이용, 분류 및 편목, 이용자업무, 컴퓨터응용 등이었다.

협회 사무국은 평양의 국립중앙도서관내에 있다. 그리고 1992년 6월 7일 북한방송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도, 시, 군 소재지들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 각급학교 및 농촌에 15,000여개의 도서관(도서실포함)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에 인민학습당과 도서관 건립바람이 불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는데, 이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도서관기능을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서관 운영관리방법연구소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연구그룹이 1982년 4월 인민대학습당 건립과 동시에 독립하여 5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연구소로서 도서잡지연합목록출판실, 오토메이션화 연구실, 독자봉사연구실, 운영방법연구실, 학술연구실, 출판실을 두고 있다. 이 연구실에서는 「도서잡지 연합목록」, 「잡지기사목록」, 「도서관참고자료(계간)」 등의 각종 서지, 참고자료를 발행하고 있고 전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방법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북한의 도서관은 국내 도서관과 비슷한 업무와 활동을 수행하며 국단위의 주무부서와 산하 연구기관의 설치, 사서자격의 급수제를 실시하는 등 외형적 체계로는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비하여 뒤질 것이 없다.

### 3.2 사서양성제도

현재의 사서자격은 급수제로 이루어져 있고 매년 검정시험을 실시하며 사서 검정수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실질적인 자료가 없어 질적으로 대비하여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에서는 군중문화활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도서관의 설치와 조직화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서관 경영의 질적 수준도 상당 부분 발전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서의 검정 수험자격에 있어서 아래 표 3.2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내의 사서자격이 근무경력과 학위 구분을 중시한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학력과 실무경력에 더 붙어 외국어능력을 그 기준을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사서의 자격조건도 세분화되어 있어 사서의 자격기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서의 검정시험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한편 인민대학습당의 경우는 이를 교육기관으로 간주하면서 사서의 교수자격을 요구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 3.3 공공도서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형태와 같은 체계로 북한에는 군중도서관이 있으며 북한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도서관이지만 그 내용이 알려진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다.

군중도서관의 주요 임무는 주체사상으로 독자를 교육하여 제3차 칠년계획을 위해 새로운 과



표 3.2 사서자격 비교

북한		남한	
1 급 사서	3개 국어를 습득하고 박사, 교수의 자격을 갖춘자	1 급 정사서	1.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보처리기술자자격을 받은 사람 3.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
2 급 사서	3개 국어를 반드시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3 급 사서	2개 국어를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4 급 사서	5급 또는 6급의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5 급 사서	4년제 또는 5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여야 한다	2 급 정사서	1.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사람 2.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소지자 3.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 4년이상 있는 사람
6 급 사서	고등학교 졸업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	준사서	1. 전문대학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문헌정보학을 부전공한 사람

학기술지식의 보급을 실현하고, 도서를 통해 노동자 문화수준을 제고시켜서 노동자에게 정신 문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음은 도, 시, 군, 구도서관의 기준이다.

표 3.3 북한의 도시군구 도서관기준

	장 서	근무인원	경 비	건축면적
도도서관	30-40만권	20-25명	15만원/년	3000㎡
시도서관	5-10만권	5-7명	4만원/년	1500㎡
군도서관	5-10만권	5-7명	4만원/년	1500㎡
구도서관	5-10만권	5-7명	4만원/년	1500㎡
학생도서관(실)	2-3만권	5-6명		

표 3.4 남한의 공공도서관 기준

봉사대상 기준인구(인)	시 설		자 료	
	건물(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기본장서(권)	연간증가(권)
2만미만	264이상	60이상	3,000이상	300이상
2만이상 5만미만	660이상	150이상	6,000이상	600이상
5만이상 10만이상	990이상	200이상	15,000이상	1,500이상
5만이상 30만이상	1,650이상	350이상	30,000이상	3,000이상
30만이상 50만미만	3,300이상	800이상	90,000이상	9,000이상
50만이상	4,950이상	1,200이상	150,000이상	15,000이상
사서직원	도서관 건축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한편 도도서관 건축면적은 건축면적이 3,000㎡ 이었는데 이 공간으로는 부족하여 15,000㎡로 확장할 계획이다. 시, 군, 구 도서관도 3,000㎡로 확장할 것이다. 학생도서관(실)은 일반적으로 모두 구도서관의 분관으로 건축면적은 약 100㎡이다.

다음은 高哲義의 북한방문기록에 나타나 있는 군중도서관의 사례이다.

1) 함경남도도서관

1946년 8월 10일에 창립, 공화국에서도 역사가 긴 도립도서관이다. 함흥시 중심부의 경관이 좋은 신흥산 언덕에 연면적 9,900㎡의 4층 건물로 4개의 열람실과 50만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다. 하루 평균 400명의 이용자가 있다. 1986년 현재 장서는 29만 1천 권이고, 사회과학서적이 30%, 자연과학 서적이 70%에 이르고 있다.

2) 동홍산구역도서관(함흥시)

1947년에 함주군도서관으로 개관, 1973년의 행정구역 개정으로 동홍산 구역도서관으로 개명, 1983년 10월에 신축하여 현재에 이른다. 1,080㎡의 부지위에 건립되어진 동관은 1층은 학생도서관, 2층은 성인용 군중도서관, 구역내 15개소에 이동식 도서관을 설치, 8개소에서는 현지 봉사하고 있다. 1층의 학생도서관에는 서고와 3개의 열람실, 수집정리실과 체본실, 그리고 서클실이 있으며 14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10종의 잡지, 100~150권의 도서를 수집, 1986년 4월 현재 17,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하루평균 4~500명의 열람자에게 봉사를 하고 있다. 서클실에는 외국어학습용의 녹음기, TV, 슬라이드 등 각종 기재가 각종 서클의 과외활동을 위해서 구비되어 있다. 2층

의 군중도서관에는 서고와 5개의 열람실이 있고 월평균 100종, 250~300권의 도서를 수집, 1986년 4월 현재 7,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250명의 열람자에게 봉사하고 있다. 동 구역도서관에는 4급사서 2명, 5급사서 1명, 6급사서 4명의 총 7명이 종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방문단의 鮑振西 일행이 방문한 순천시도서관과 모란봉구도서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3) 순천시도서관

이 도서관은 1948년 10월에 건립되었고, 건립 초기 규모는 총 500㎡였다. 1982년 신관을 건립했는데, 면적은 2,200㎡가 된다. 현재 장서 35만권이 있고 그중 외국도서가 5만권이다. 중국, 소련의 정기간행물은 500여종이다. 매년 1200~1500명의 이용자들이 이용한다. 사서는 13명이 있는데 기사로 지칭되고, 매년 경비는 9만원이며, 그중 도서구입비가 67,000원이다. 매년 신간이 35,000권이 입수되고 있으며 독자는 국민학생부터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오전 9시 개관하여 오후 6시 폐관한다. 일요일도 정상개관한다.

분관운영 : 순천시는 46만명의 인구가 있고 7개 연합기업, 36개 1급기업이 있다. 2급이상 기업은 모두 각 단위마다 도서관이 있다. 시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기업도서관에 책을 보내어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비교적 집중된 지역에서는 3개의 분관이 설립되었다. 모든 분관은 4명의 직원이 있고 규모는 300㎡이며, 2개의 열람실과 5~6만권의 장서를 보

유하고 있다. 3분관은 대출증을 800개 발행하고 있다. 시도서관이 통일적으로 분관의 인원, 경비 그리고 도서보충업무를 담당한다. 시도서관은 매주기마다 한차례씩 분관에 도서를 보낸다.

### 4) 모란봉구도서관

이 도서관은 1961년에 설립되었다. 관내에는 4개의 열람실이 설치되어 있다. 장서는 10만권이고, 사서직원이 14명, 매년 15~20만명에게 봉사한다. 4개의 도서잡지열람실(2곳은 성인용, 2곳은 학생용)이 설치되어 있다. 연경비는 5만원이며, 연간신간 10,000종, 정기간행물 105종과 신문 30종을 구독한다.

송승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북한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기능을 정리할 수 있다.

(1) 북한의 공공도서관은 국가 지휘체계로 도서관망이 조직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2) 북한의 공공도서관은 성인용도서관과 학생용도서관, 그리고 아동용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이 지역행정구역 단위로 연계되어 조직되어 있다.

(3) 북한의 공공도서관은 당의 이념과 김일성 유일사상의 선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생산증가를 위한 학습에 초점을 맞춘 사회교육기관이다.

(4) 북한의 공공도서관은 외형적 조건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과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격은 다르지만 오히려 대민봉사 차원에서 보면 일부분 우리나라에서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5) 이념과 사상학습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심

은 하지만 학교수업과의 조화를 위해 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지도를 직접 담당하고 수행함으로써 일찍부터 도서관과의 관계를 정립하여 준다는 점이다.

### 3.4 대학도서관

북한에는 1960년 10월 20일 개관한 것으로 알려진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도서관이 대표

적인 대학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私と 朝鮮]의 저자 小田實의 1976년 북한방문기록을 살펴 보면 이 도서관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1) 장서의 양은 별문제로 하고 장서의 내용은 사상 문학 영역에서 빈약한 것이 뚜렷하다. 기술서나 과학도서류는 많이 있으나 사상과 문학에 관계되는 서적은 놀랄만큼 적다.

표 3.5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관 장	대학제1부총장	
면 적	12,000㎡	
장 서	200만권	
신 간 증 가	연 12,000권	
정기간행물	5,000종	2,000종은 국제교환, 매년 연변대학도서관과 350종의 정기간행물 교환, 컴퓨터를 이용한 관리
국 제 협 력	60개국, 1200지역단위도서관과 교환관계	
열 램 실	12개	1,200석
직 원	150명	
도서구입비	연 23만원	
목 록	분류목록 서명목록 저자명목록	
열 램	학생열람실 교원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청각실	350석 128석 참고서, 민족고전문헌, 학위논문 등 보존서고
개 관 시 간	매일 오전8시-오후 10시	

(2) 小實田이 확인한 문학서 중 「안나카레니나」와 「베니스의 상인」은 있으나 「죄와 벌」, 「신곡」, 「헛웃」등은 없다. 그 이유가 음모와 질투가 주제로 된 책은 출판정책상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이 대학에 도서관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원과 졸업생수, 교과목은 알 수 없고, 주야간(통신대학 포함)으로 사회과학계열 대학에 신문도서관학과가 있어서 사서를 배출하고 있으며 사서를 도서관원(일군)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高哲義가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에 관해 기록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종합대학에는 14학부, 8연구소, 대학원이 있고 1만2천명의 학생이 배우고 있다. 도서관은 1946년에 대학 창립과 함께 개관, 1970년에 1천석의 열람좌석과 2백만권의 장서능력을 가진 4층 건물의 본관을 신축하였다. 현재 이 본관 외에 기숙사와 1호 교사가 분관으로 되어 있다. 도서관의 조직구성은 수집편성부 15명, 분류통보부 20명, 열람부 40명, 장서부 40명, 김일성주석노작자료부 8명, 복사부, 사진부, 제본부, 재정부가 있고 100명의 사서(1급 2명, 2급 18명 포함)와 40명의 일반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장서는 1986년 현재 3,400종의 잡지를 포함하여 200만권이고 장서능력 범위를 초과하여 증축을 고려하고 있다.

정리는 동관에서 제정한 십진식 분류법을 채용, 언어별로 분류목록, 서명목록, 저자명목록을 비치하고 있다. 1984년에는 정무원 의결로 동대학의 교육 및 과학연구활동 조건을 더욱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관에서 수입한 출판물중 전문

과학학술잡지와 도서를 인민대학습당과 마찬가지로 동 대학 과학도서관에도 배당할 수 있도록 정하여 도서자료의 수집활동을 충족하게 되었다.

鮑振西의 방문기에 따르면 김일성 종합대학은 1946년 10월 1일 건립되었다고 한다. 현재 15개 계열에 110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10개 연구소와 90개 연구실이 있다. 학생수는 모두 12,000명이고 교직원이 5,000명, 그중 교원은 1,200명, 대학원생 800명, 사서 관리요원 300명이다. 박사과정도 설치되어 있다. 학제는 문과 4년, 자연과학은 5년이며, 현재 중국, 소련, 일본, 월남, 독일, 이란 등의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도서관의 일반 현황은 표 3.4와 같다.

### 3.5 국가 중앙도서관

#### 3.5.1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은 1946년 10월 13일에 창설되었다는 견해와 1948년 11월 27일 평양도서관 자리에 간판만을 바꾸어 달았다는 주장으로 보아 1946년에 평양도서관으로 창설된 것을 1948년 명칭만 개칭하여 중앙도서관으로 재개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기록은 1975년까지만 유지되었고, 그 이후의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6·25 동란으로 이 도서관은 70,500권의 장서가 소실되었다고 하며, 전후에 3층 건물로 복구하여 1954년 8월 14일에 다시 문을 개관하였다. 1958년에 들어서 신관을 증축하여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약 1,800㎡로 넓혔

다고 한다. 이때에 수집된 자료는 주로 중공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四庫全書]를 비롯한 1,960권의 기증자료와 소련으로부터 받은 전후 경제복구를 위한 공학도서 등이다. 부대시설로는 민족고전실, 일반열람실,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부문별 열람실, 중앙참고문헌열람실, 특허창의고안열람실, 청년학생열람실 및 영화시설, 상점,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1982년 인민대학습당이 창설되어 실제적인 국가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전효과와 극대화 차원에서 외부적인 홍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기관 및 단체별 인명집에 보면 중앙도서관 관장과 사서장의 이름이 여전히 기록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도서관의 폐지나 개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총정원은 1994년 현재 251명이며 그중 사서직은 127명으로서 이 인력으로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을 내실있게 수행한다는 것은 어렵다. 미국의 경우 의회도서관에 약 5,000명, 영국은 국립도서관에 2,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상의 사서직원 배치기준만 계산해도 580여 정도의 사서직 직원이 필요하다. 더구나 통일을 내어다 보면서 남북한 도서관 체제와 현황을 비교하여 볼 수 밖에 없는 시점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국가대표도서관인 인민대학습당의 경우를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 3.5.2 인민대학습당

북한이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 자랑하고 있는 인민대학습당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먼저 高哲義의 방문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金日成 주석의 70회 생일인 1982년 4월에 개관, 연면적 104,000㎡ 학습당, 단일한 도서관으로서 전사회의 인텔리화의 중심지이며, 근로자의 통신종합대학적 교육의 장이다. 600실 5,000석의 열람실, 3천만권의 장서능력, 200명의 번역집단, 최신의 과학기술정보를 모은 정보센터, 기초과학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강의실, 외국의 기술도서를 테이프에 번역녹취하여 테이프와 도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녹음강의실, 음악감상이 가능한 스테레오장치 30대를 갖춘 음악강의실 등 교육적 기능을 갖춘 많은 학습실, 강의실이 완비, 200명의 강사와 800명의 사서가 교대제로 야간, 일요일에도 개관하고 있다.

이용자는 목록을 보고 도서를 검색, 1979년 이후 출판서적은 열람실에서, 이전의 자료는 대출대에 청구, 전산기로 서고 내로 연락하며 관성식 원격도서관반장치를 움직여서 이용한다. 수시로 행해지는 강의는 사전에 이 테마와 강사명, 일시가 신문, TV, 라디오로 전국에 알려져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민대학습당에는 지방의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도서자료를 단체 및 개인에게 장기대출하여 주고, 시내에 호텔을 완비, 지방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986년에는 연간 열람객수가 160만명, 1,048개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1991년에 중국대표단으로 북한을 방문

한 鮑振西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민대학습당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의해 건립한 것으로, 조선 당과 정부의 교육에 대한 중시를 실현하고 있으며, 조선에서는 이미 취학 전 교육, 전일제 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및 간부의 교대훈련제도를 포함하는 교육체계를 세웠다.··· 조선이 매년 교육에 쓰는 비용은 국가 재정지출의 약 18%를 점한다고 한다. 인민대학습당은 도서관일뿐 아니라 광대한 인민대중에게 정치이론, 과학 및 문화지식의 학습을 제공하는

장소이고, 계속된 교육과 지식갱신을 진행하는 사회교육기지이다. 인민대학습당은 매일 연인원 8,000~10,000명의 독자를 받는다.”

인민대학습당은 정무원이 직접 지도하고, 총장 1명, 부총장 4명을 두고 교육, 번역, 과학 및 도서관리업무를 나누어 관리한다. 기구는 교육국, 번역국, 출판국, 목록통보처, 과학연구처, 녹음처, 도서목록취재처, 도서관리처, 도서대출처, 국제교환처, 대외업무처 그리고 후방근무 관리부 등이 있다.

표 3.6 인민대학습당 직원현황

직 책	인 원	비 고
교원, 과학연구원	250명	40% 박사학위획득
번역, 녹음인원	250명	
도서관리원	400명	출판취재 50명 열람업무 100명 대출업무 140명 기타 관리원 100명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민대학습당의 총 직원 수는 총 900여명인데 녹음을 위한 전문가 250명을 제외하더라도 500여명이 넘는 인사배치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의 현원의 2배가 넘는 것이다. 통일후에도 우리는 북한의 모든 면에서 받아들일만한 것은 수용해야 하고 우리가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준비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서관정책과 제도면에서 남북한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성찰과 이에 대응하는 대비책과 발전책을 동시에 수립하여야만 한다.

한편 인민대학습당의 전문직종은 5급으로 나뉜다. 그들의 재직조건과 임금현황은 아래와 같다. 뛰어난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민사서, 또는 공훈사서의 칭호를 준다. 인민사서는 1급 사서에 해당하고 공훈사서는 2급사서에 해당한다. 인민대학습당에 현재 인민사서와 공훈사서 칭호를 받은 사람은 20여명이 있다. 한 등급은

3년마다 한차례 시험을 치루는데 합격자는 일반적으로 승진하고 시험위원회가 주관한다. 인민대학습당 고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

은 모두 1급사서이다. 시험과목은 도서관학, 목록학, 외국어, 그리고 업무성적의 심사가 포함된다.

표 3.7 인민대학습당 직원의 조건과 임금

급 별	조 건	임 금
1	박사, 교수 등	200원
2	부박사	180원
3	대졸후 10~15년 전문업종에 종사	160원
4	대졸후 5년 이상 전문업종에 종사	140원
5	대졸후 2년 이상 전문업종에 종사	120원

중국대표단의 鮑振西는 인민대학습당의 주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강의

각종 강의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인민대학습당의 주요 업무중 하나이다. 과학 이론강좌의 주요 대상은 기관 간부중 지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사람과 과학기술, 경제부문의 책임자이다. 각종 유관 부문에서 과견한 직원도 때에 따라서 참가한다. 인원은 고정되어 있고 매주 한번이다. 당정 기관부부장 이상 간부도 참가하여 강의를 들어야 한다. 강의내용은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의 소개, 국민경제발전 중의 관련있는 문제를 소개, 기타 국가의 발전형세를 소개하는 것 등이다. 강의담당자는 인민대학습당 교원이며 때로는 다른 곳의 전문가나 학자가 와서 강의하도록 초빙되기도 한다.

(2) 열람

인민대학습당은 학과설치에 따라 15개의 열람실이 있다.

제1열람실 : 주로 김정일 동지의 관계저작을 열독하고 있다. 1000석의 좌석확보.

제3열람실 : 주로 철학, 정치경제학, 법학, 역사, 음악, 미술, 소설, 일반 사회과학의 읽을 거리와 참고자료 등이 열람되고 있다. 보조서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서는 일만권이다. 일일이용자는 700~800명이다.

제7열람실 : 주로 외국어로 된 자연과학분야의 책들이 있다. 1980년 이후에 출판된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일어 관련도서들이 5만여권 있다.

제10열람실 : 주로 초록, 색인, 기관 신문들을 열람하는 곳이며 48개의 좌석이 있다.

이밖에도 번역국 조직이 번역한 외국 과학기술문헌을 열람하는 역문열람실과 특허열람실, 음악감상실, 인민대학습당 조직에서 실시한 강



좌의 녹화테이프가 소장되어 있는 시청실 등이 있다.

(3) 자문해답(Reference Work)

자문을 구하고 독자가 자료를 찾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은 인민대학습당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이다. 사회과학자문실을 참관했는데 당변은 조선사학자였으며 개인은 물론이고 단체에서도 내방하거나, 전화, 서신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매일 약 20~30회의 자문요구가 있고 어떤 때는 40~50회에 달할 때도 있다. 자문을 구해오는 사람은 주로 교원이나 기술자, 대학생과 노동자 등이다. 항상 물어 오는 문제는 고구려때의 정황, 조선과 중국의 관계, 조선과 일본의 관계, 조선민족의 형성, 현재 직면한 국내외 정세 등 자문의 폭이 넓다.

(4) 대출

평양시를 포함하여 전국 각지의 독자들이 모두 책을 외부로 대출할 수 있다. 매년 발급하는 대출증은 25,000개이며 외부로 대출한 도서는 13~15만권이다. 대출서고가 설치되어 있고 장서는 120만권에 이른다. 대출증을 갖고 있는 독자는 1회 3권까지 대출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1개월이다.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대출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누가 어떤 책을 대출하였는지, 어떤 책이 누구에 의해 대출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대출시간은 하절기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이며, 동절기 오전 9시-오후 9시까지이다. 대출처 업무담당자는 매일 각 80명 정도의 독자를 처리하고 있다.

(5) 번역

세계 각국에서 출판되는 과학기술문헌을 선택

적으로 조선어로 번역하고 동시에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녹음 녹화하는 것은 인민대학습당의 주요 업무중 하나이며 또 매우 특이한 업무이다.

(6) 책목록 편집, 인쇄

책목록을 관장하고 독자에게 외국의 과학기술을 알려주는 것은 인민대학습당의 주요 업무의 하나이다.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조선인민대학습당 도서목록] 70년대와 80년대의 목록이 비치되어 있다. 조선어와 중국어, 영어, 일어, 러시아어, 불어, 독어, 서반어 및 기타 언어 양 부분으로 나뉜다. 인민대학습당은 부정기적으로 문자에 따라 [인민대학습당 새책목록]을 편집, 출판한다.

(7) 국제도서교환

현재 700여개의 각국도서관과 과학연구기구와 도서교환 및 도서 상호대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환업무부서는 이 업무를 강화할 수 있리라 희망하고 있다. 도서교환과 상호대차 업무 외에 국제적 전람회도 계획하고 있다. 인민대학습당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회원이다. 북한도 도서관협회가 있으며 매년 연차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이 연맹의 회원이다. 인민대학습당의 총장이 북한도서관협회장이고 국제교환부처장이 협회의 비서장이다. 조사에 따르면 인민대학습당의 매년 경비가 천만원이 되고, 그중 60%는 도서구입비이다. 매년 외국출판물의 구입이 증가하여 연간 약 20만권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특징적인 것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보조사제공 부서의 성격을 갖는 문답실이 있는데 그 운영방법은 첫째, 학습과정의 의문사항

을 질의를 통하여 유능한 학자들의 직접지도를 받는 방법이 있고, 둘째, 지방에서 편지로 문의하여 학자들이 답안을 검토하여 현지로 회답하는 방법이다. 기타 근로자들의 학습자료를 영인하는 복사실, 녹음테이프를 통하여 빠진 강의를 보충하거나 출장후나 퇴근후에 이용할 수 있는 녹음강의실, 회화와 원서번역을 돕는 외국어강의실, 기술공학강의실, 국제학술토론회, 음악감상실 등이 있으며, TV시설 등과 영화영상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김정섭에 의하면 인민대학습당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해 주고, 열람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활동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의 과학기술개발 조류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지식수준을 강화시켜 주는 전사회의 지식화를 위한 중앙기지이자, 교육기관이며 방송통신대학이므로 도서관이 아니라 인민대학습당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민대학습당은 국제 상호대차업무와 자료교환을 하며, 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와 정보업무를 수행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인민대학습당을 정리할 수 있다.

(1) 홍보자료 외에는 객관적인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그 크기로 볼 때 단일도서관으로는 세계적인 규모의 도서관으로 볼 수 있다.

(2) 시설활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시설 수준은 국제적 안목과 기술발달의 적극적 수용원칙에서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

다.

(3) 일반 도서관들과 같이 열람 위주의 도서관이 아니라 강의를 기본업무의 하나로 하는 전문부서를 통해 강의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4) 대규모의 종합통신대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정보조사제공(참고봉사)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유능한 전문학자들을 통해 심도가 깊은 직접, 간접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번역서비스는 적절한 정보의 실 수요자를 위한 정보조사제공의 모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

#### 4.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제안 및 결론

남·북한 도서관은 기반과 제도, 방법과 성격, 목적과 이념, 성장과정과 생명력 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북한 도서관이 집단의 이념성에 근거하여 목적론적 차원에서 그 역할과 의미를 강조해 왔다면, 남한의 도서관은 필요론적 요건과 가치론의 요건을 민주주의적 자유 이념과 사회교육적 이념을 그 기본개념으로 동시에 주장해 온 셈이다. 이같은 차이는 결국 우리 민족의 도서관계가 체제와 이념의 논리, 필연성과 목적성의 논리에 의해 상당히 큰 편차 속에서 양분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도서관의 교류와 이를 토대로 한 통일형 민족도서관정책과 제도를 확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같은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절대적인 명제라 아니할 수 없다. 남북

도서관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사의 차원에서 남북도서관의 전체적인 의미를 논하기 위해서는 남북도서관의 교류가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남·북 도서관의 교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의 비정치적인 학술, 과학, 기술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면 정치적 통합으로 진전되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언어, 역사, 고고학 및 서지학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의 시급성을 남북한 양측이 동시에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서관분야에서 남북간 상호협력은 정보자료의 이동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를 유발하고 문화적 차원에서의 협조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고 도서관 상호협력을 하고 있는 양자간에 기능적인 상호의존관계가 생기면 공동의 통합이익이 생겨나고 이 공동이익은 두 사회를 불가분의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둘째, 협력방안으로는 먼저 차관급 이상의 인사와 도서관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남북도서관

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협정을 체결한다. 또한 특수자료 개방정책을 확대한다.

셋째, 도서관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서관 업무측면에서 종합목록이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를 상호대차한다. 또한 자료를 공동활용을 위해 표준화된 목록규칙을 작성하고, 한시적으로 통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 자료센터’를 활성화시킴으로서 북한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도서관의 통일을 대비한 정책과 제도의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의 남북한 도서관 연구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며, 문화체육부 내에 도서관 정책제도 및 문헌정보학 연구소의 시급한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문제가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국가중앙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 및 문헌정보 연구부를 설치하는 직제개편이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高哲義. 198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圖書館事情.” 圖書館雜誌 81(8) : 455-45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1992. 조선말대사전.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북한중앙기관조직현황. 1983.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총람. 1983. 1945-1982. 서울 : 북한연구

소.  
 백과사전 2. 1982.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송승섭. 1994. “북한도서관의 기능과 현황 상, 하.” 북한1월호 : 152-159, 2월호 : 142-149.  
 양일운. 1982. “북한의 도서관.” 북한 2월호 : 108-119.

- 정분희. 1993.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선말대사전. 199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陳曉文. 1992. “朝鮮的圖書館事業.” 圖書館工作與研究 第3期 : 59-61.
- 통일원. 1993. 남북기본합의서 및 분야별 부속 합의서 타결과정. 서울 : 통일원.
- 鮑振西. 1992.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的圖書館事業.” 圖書館建設 69 : 13-1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남북학술교류 여건 진단 및 대비책 모색.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상완. 1993. “도서관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도서관문화 34(6) : 5-15.
- 한상완 등. 1995.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학술진흥재단(연구보고서).
- 한승현. 1993. “남북부속합의서에 따른 저작물의 상호보호방안.” 인권과 정의 197 : 87-93.
- Catalogue of Korean Publications*. 1993. Pyongyang : Korea Publications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 Kim, Gyong Sop. 1991.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Activiti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Information, A Resource for Development*, ed. by B. G. Goedegebuure, pp.193-197. Amsterdam : Elsevier.
- World Guide to Libraries*, 10th ed. 1991. München : Saur.
- Yang, Key P. 1963. ‘Present Conditions of Libraries in North Korea.’ *Korean Affairs* 2(2) : 187-198.